

꿈은 영원히 나이 들지 않는다

시니어 작가 프로그램
'오작작' 3기를
마무리하며

글. 강백수

누구에게나 물어둔 꿈 한 두가지 쏘문 있다. 어떤 꿈은 상당히 진지했었고 물어두기는 했지만 차마 깊이 물어두지는 못해 이따금 고개를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꿈은 가볍게 스치는 것이었고 이제는 꽤 깊은 곳에 묻혀있어 한동안 까맣게 잊고 지내기도 한다. 그 꿈들은 그것이 가슴 속에서 일렁이던 시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것에 대한 기억이 그 시절을 불러오기도 하고, 어떤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 알 수 없는 곳으로 매일 조금씩 흘러가지만 그때 그 꿈들은 늘 거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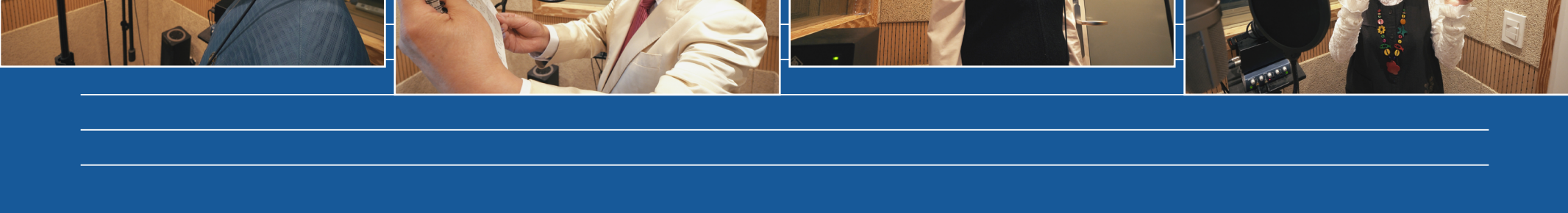
‘오작작’은 그런 꿈 하나를 뒤늦게나마 이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글을 한 번 써 보고 싶었던 꿈, 노래를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꿈, 가수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꿈. 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노랫말이라는 키워드에 근접한 꿈들을 가슴에 묻어둔 분들을 초대해서 어쩌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그 시절을 만나게 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1기 열 분, 2기 여덟 분, 그리고 이번 3기에는 아홉 분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적게는 60대부터 많게는 80대까지,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셨고 가정을 아름답게 일구고 가꾸어내셨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헌신하신 선생님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부평생활문화센터를 찾아주셨다. 손등에는 세월이 빚어낸 아름다운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지만 두 눈은 십대, 이십대 청춘의 이글대는 불꽃을 품고 계셨다.



문화도시 부평 X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X 산곡노인문화센터

시니어 작가 프로젝트



함께 노랫말이 아름다운 노래를 나누어 들었다. 각자가 살아온 시절의 노래들을 나누어 들으며 우리는 1970년대로 날아갔다가 2020년대로 돌아왔다가 또 1980년대로 향했다가 1990년대를 거닐기도 했다. 그 때마다 그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또렷하게 떠올렸다. 그리고 각자의 가슴에서 꺼낸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내 인생 첫 자작곡이 될 이야기하기에 저마다에게 의미가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김기영 선생님은 스무 살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건넰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정글에서 전우들이 쓰러지던 모습이 아직도 때때로 당신을 괴롭히곤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마냥 괴로워할 수는 없기에 다양한 활동과 긍정적인 생각들로 그 상처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신다고 하셨다.



김명주 선생님은 수십 년 만에 손톱에 예쁜 봉숭아물을 들이신 이야기를 천진난만하게 해 주셨다. 여름 휴가지에서 우연히 봉숭아꽃을 만났고 손톱에 주황빛깔 물을 들이며 어린 시절을 기억 속에서 꺼내어 보셨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얼굴이 잠시나마 소녀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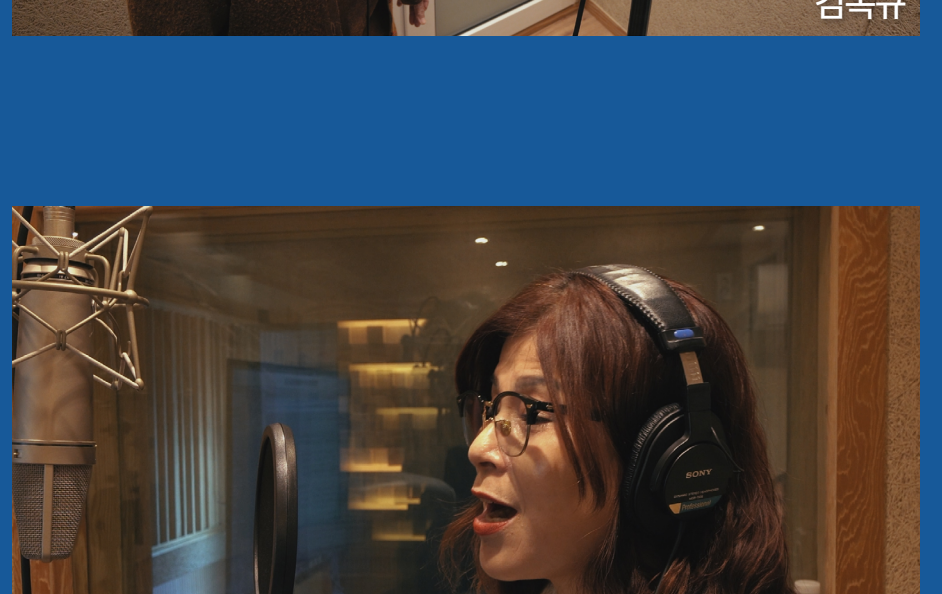
노봉애 선생님은 젊은 시절 가슴에 품었던 선생님이라는 꿈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루게 된 지금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이로 활약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맞이하게 될 70대와 그 이후의 삶 역시 기대되다며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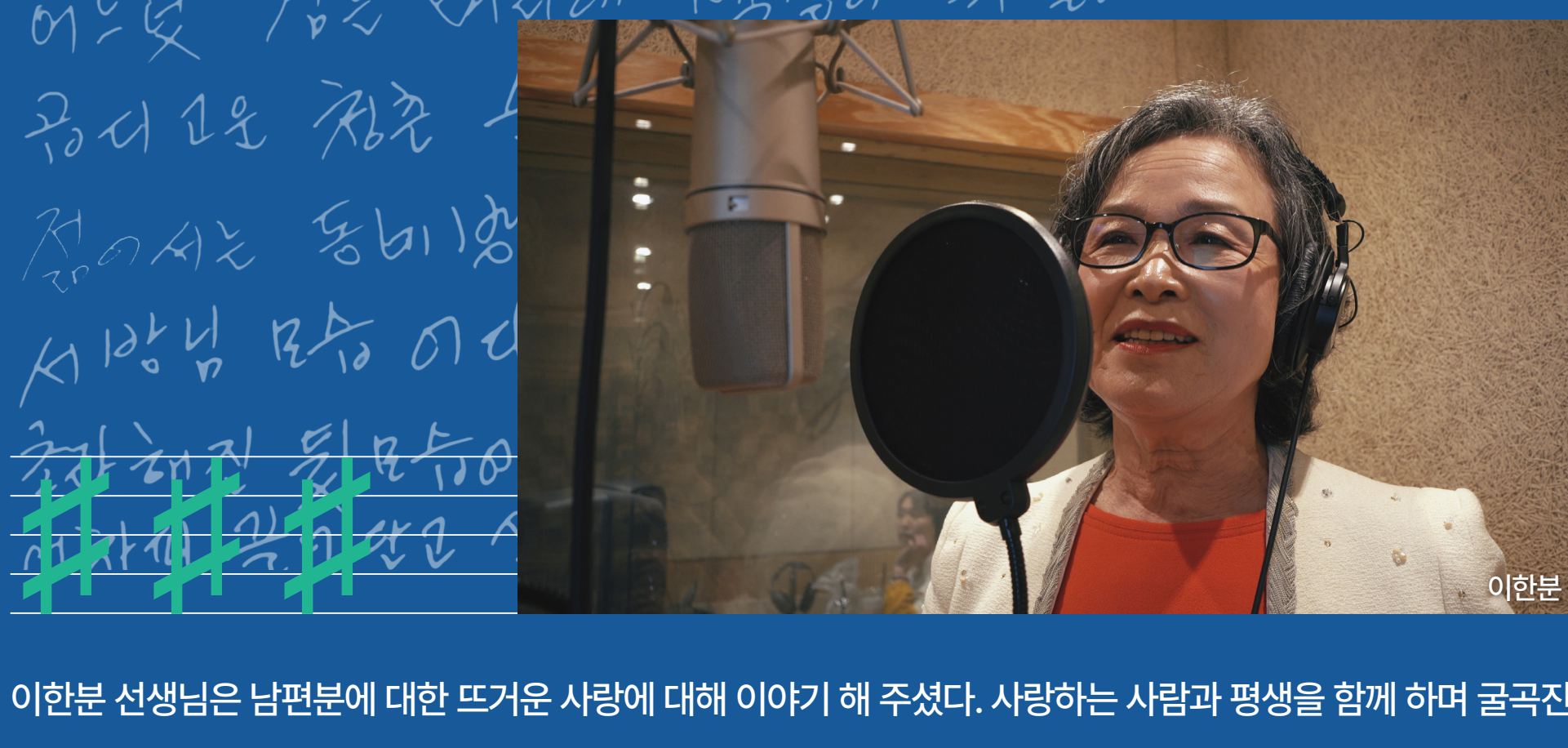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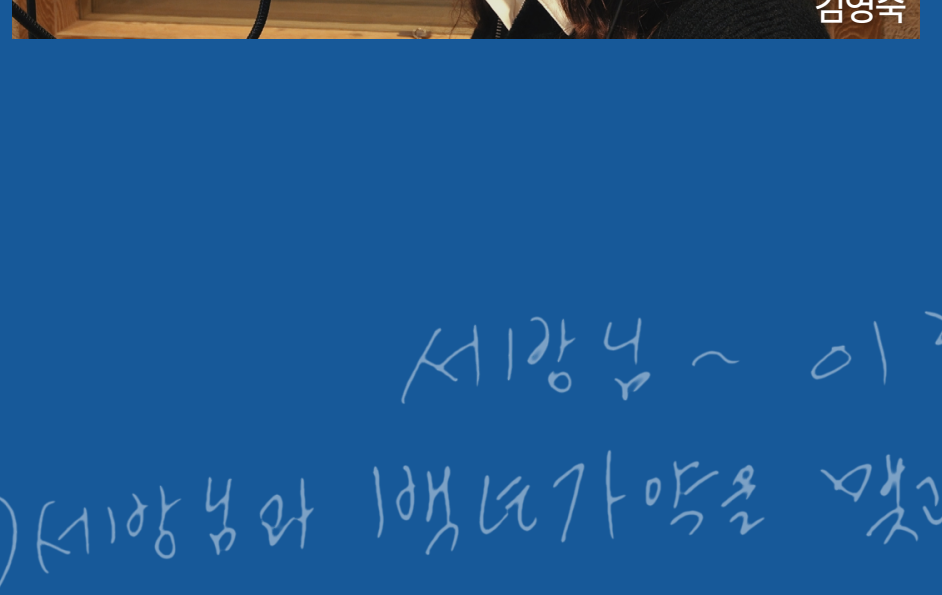
이인숙 선생님은 이제는 변해버려 다시 만날 수 없는 고향 풍경을 손에 잡힐 듯 이야기 해 주셨다. 임진강이 흐르던 고향 마을 풍경이 거기에 가 보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 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애잔한 마음에 모두가 공감하며 이야기를 경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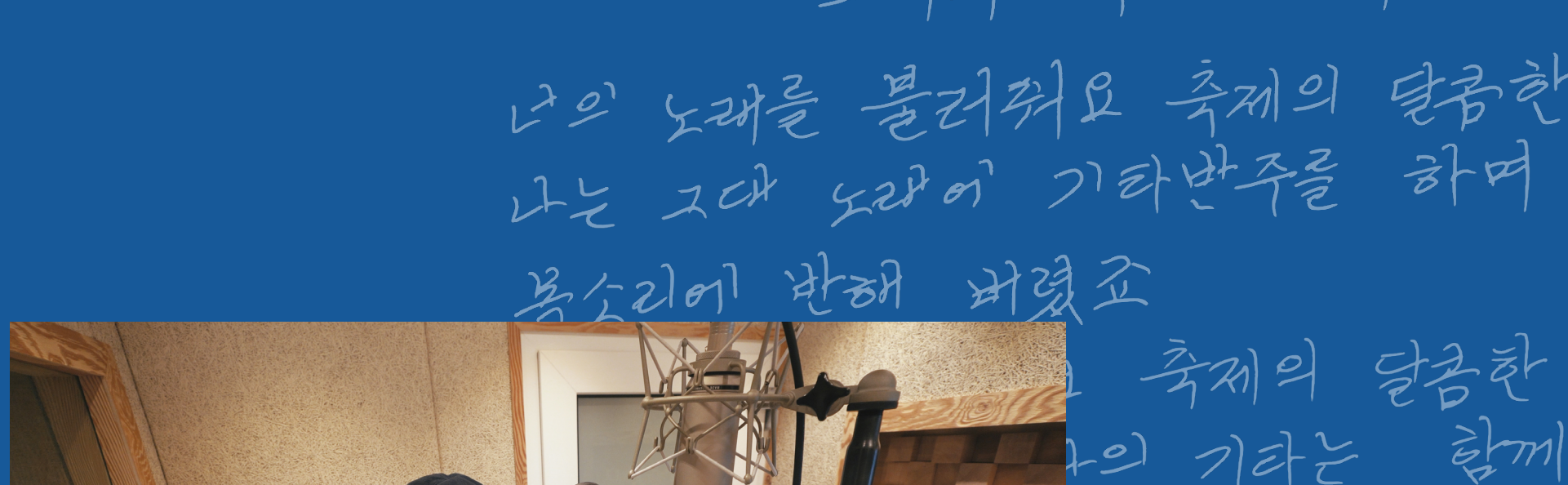
김복규 선생님은 그동안 살아온 삶을 차근차근 들려주셨다. 검정고무신을 신고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부터 스물세 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치열하게 삶을 지켜내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내셨다. 그동안의 삶을 통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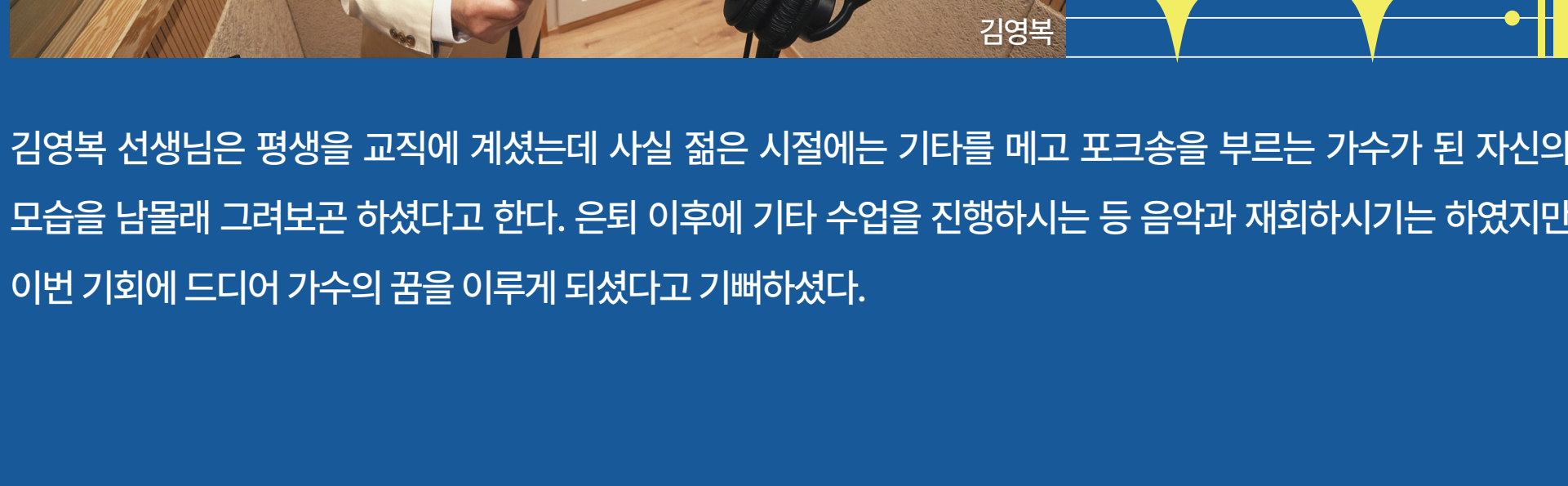
김영숙 선생님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낸 이야기를 해 주셨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게 되었지만,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의 사랑과 다시 한 번 일어나고자 했던 의지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슬펐던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산을 찾고 거기서 만난 꽃과 나무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이한분 선생님은 남편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며 굴곡진 세월을 함께 헤쳐 나가고, 그 과정에서 조금은 늙고 때로는 외로움에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여 느끼게 되는 연민과 애정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더욱 끈끈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들을 수 있었다.



김영복 선생님은 평생을 교직에 계셨는데 사실 젊은 시절에는 기타를 메고 포크송을 부르는 가수가 된 자신의 모습을 남몰래 그려보곤 하셨다고 한다. 은퇴 이후에 기타 수업을 진행하시는 등 음악과 재회하시는 등 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드디어 가수의 꿈을 이루게 되셨다고 기뻐하셨다.



같은 이유로 가슴이 뚱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바로 수업의 최고령 수강생인 정주완 선생님이였다. 5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기가수의 꿈을 향해 정열적으로 달려가던 선생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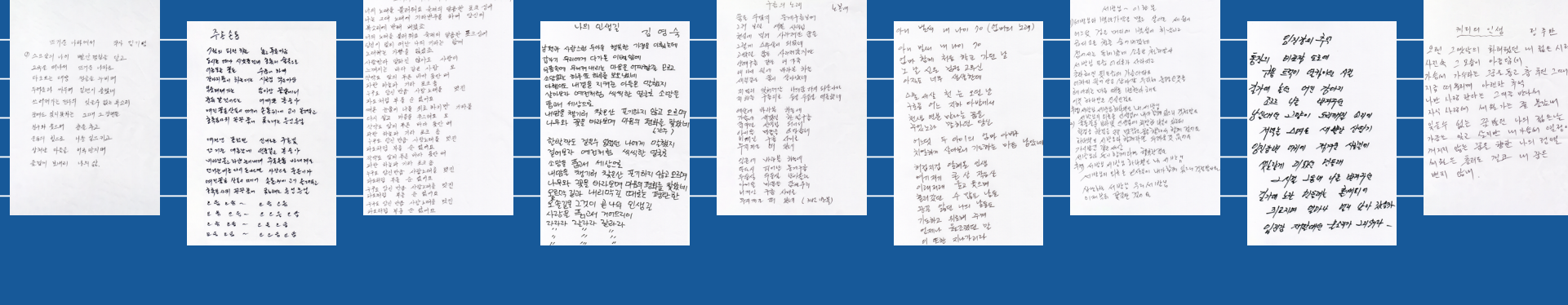


젊은 시절 실제로 가수 데뷔를 경험하셨고, 이제는 전설이 된 많은 가수들과 함께 활동하셨던 시절을 두 눈 반짝이며 말씀해 주셨다. 가정을 이루며 접어야 했던 그 꿈이 되살아나는 것이 감격스럽다고 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꼭꼭 눌러 담아 아홉 곡의 노래가 완성되었다. 나와 보조강사 이청록 선생이 작곡을 도맡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주 작은 도움에 불과했다. 모두 선생님들의 이야기이고, 선생님들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무언가 가르쳐드리기 위해 선생님들을 뵈었는데 오히려 내가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가르침을 잔뜩 얻어 가는 기분이다. 젊은 시절 품었던 꿈들을 이루게 되신 아홉 분의 선생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6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내내 행복했다.



강백수 (姜白首, KANG BAEK-SOO) 싱어송라이터 / 시인

2008년 계간 <시와 세계>로 등단한 시인이며
2010년 EP <노래, 강을 건너다>로 데뷔한 가수이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시적인 순간들을 포착하여 원고지와 오션지에 기록한다.



‘오션지에 적자! 나의 인생 이야기를 담아서!’
65세(1958년생)이상 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작작.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사와 노래, 레코딩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주1회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 교육이 진행됐다.

